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에 대한 연구:

‘V₁’과 ‘V₂’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인 경우

진려봉*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에서는 서로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형용사 어간이 ‘-고’에 의해 통합되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복합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 (1) a.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등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b. 자연 앞에서 크고 작음의 구별은 의미 없는 일이다.
- (2) a. 우리는 옳고 그른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b. 옳고 그른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둘 이상의 구성 성분 a와 b 등이 만나 복합구성 A를 이룰 때, 복합구성 A의 성격에 따라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통사론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태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A는 그 자체가 단어인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직접 구성 성분 가운데 하나가 접사인 경우에는 여러 어절로 이루어진 구성도 포함된다. 통사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A는 여러 어절로 이루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어진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직접 구성 성분이 어말어미, 선어말어미이거나 조사인 경우도 포함된다(서형국 1997: 25). 본고의 연구 대상은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형용사가 연결어미 ‘-고’에 의해 통합되는 복합구성으로서 통사론의 연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복합구성은 ‘물이 맑고 차다’에서의 ‘맑고 차다’와 같은 일반적 형용사구와 비교했을 때 ‘-고’의 선·후행 형용사가 자유롭게 교체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수식어를 가지지 못하며, 복합 구성 내부에 다른 성분의 삽입이 가능하지 않는 등¹⁾ 통사적 제약을 받는다. 또한 의미 면에서도 ‘-고’로 통합되는 일반적 형용사구와 달리 단순히 두 형용사와 연결 어미 ‘-고’의 의미로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의 선·후행 성분이 반의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인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을 일반적 형용사구에서 독립시켜 그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로 반의 관계를 이루는 동사도 ‘V₁-고 V₂’ 형 구성으로 쓰일 수 있다(예: 살고 팔다, 죽고 살다, 오르고 내리다 등). 그러나 ‘V₁’과 V₂가 동사인 경우, ‘V₁-고 V₂’ 형 구성이 통사·의미적 면에서 모두 ‘V₁’과 V₂가 형용사

1) ‘물이 맑고 차다’와 같은 문장에서, ‘맑다’와 ‘차다’가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수식어를 가질 수도 있고, 형용사구 내부에 다른 통사적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물이 맑고 아주 차다.

b. 물이 맑고도 차다.

‘맑고 차다’가 위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가지는 것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고’에 의해 통합된 일반적 형용사구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맑고 차다’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a. 크고 (*아주) 작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반짝이는 큰 별 하나가 있다.

b. 크고(도) 작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반짝이는 큰 별 하나가 있다.

(2a)는 ‘크고 작’ 구성에서 ‘작’만을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 (2b)를 보면 ‘-고’ 뒤에 ‘도’가 들어가도 무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가 들어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형용사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도’가 없는 경우, ‘크고 작은 별들’은 ‘크기가 여러 가지/다른 별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도’가 있는 경우, ‘크다’와 ‘작다’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별들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에서는 ‘도’가 있는 형용사구를 일반적 형용사구로 보고, ‘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성을 이와 다른 구성으로 본다.

인 경우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형용사로만 좁히기로 하겠다.

2.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고’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로는 서정수(1985), 이관규(1992), 이은경(1996), 서형국(1997), 고광주(1999), 박종갑(2000), 고재설(2003), 서형국(2006)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은 모두 ‘-고’의 문장 접속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대등접속문과 종속접속문의 차이점이나 관별을 다루고 있고, ‘-고’가 구나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²⁾ 본고의 연구 대상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논의로는 김창섭(1994), 이상욱(2004) 등이 있다. 김창섭(1994: 140)에서는 ‘-음’ 파생명사를 논의할 때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 등과 같은 구성을 ‘구의 명사화’로 보았고, 이상욱(2004: 89)에서는 접속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용언어간 구성이 ‘-음’과 결합하여 단어와 동일한 통사적 환경에서 쓰이는 ‘높고 낮음’, ‘옳고 그름’ 등 구성을 임시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크고 작’, ‘옳고 그르’ 등과 같은 복합구성의 통사적 기능이나 의미를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표준』, 『금성』, 『조선』³⁾ 등 한국어 사전에서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에 대한 언급은 ‘-고’의 뜻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준』에서는 ‘-고’의 선·후행 성분이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같이 ‘-고’의 ‘나열’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고, 『금성』에서는 『

2) 대등접속과 관련하여 고광주(1999)에서는 한국어에서 통사적인 대등 접속문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의미적 대등구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통사적 대등구성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서정수(1985: 15)에서는 대등 접속을 선행절과 후행절의 논리적인 의미 관계에 따라 ‘순접’, ‘이접’, ‘역접’ 3가지로 나누었고, 이관규(1992: 58)에서는 이와 달리 ‘역접’을 제외한 ‘순접’과 ‘이접’으로만 나누었다.

3) 여기의 『표준』, 『금성』, 『조선』은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국립국어연구원),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1992, 동방출판사),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등 1991, 금성출판사)의 약칭이다.

〈표 1〉

사전	뜻풀이	예시
『표준』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놓는 연결어미.	<u>오고</u> 기는 정/ <u>높고</u> <u>낮은</u> 산봉우리/ 물이 <u>맑고</u> <u>차다</u> /여름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금성』	상반되는 두 사실을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길 <u>고</u> 짧은 것은 대 봐야 알지. 흥정 <u>은</u> 불 <u>이고</u> 싸움 <u>은</u> 말려라.
『조선』	두 개의 사실이 같은 자격으로 나란히 이어짐을 나타낸다.	<u>맑고</u> <u>푸른</u> 조국의 하늘. 거리를 <u>오</u> 고 <u>가는</u> 사람들.
	뜻이 반대되는 단어로 쌍을 이루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낸다.	<u>옳고</u> <u>그른</u> 것을 똑똑히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u>가</u> 고 <u>안</u> 가는 것은 신중히 협의해 <u>보</u> 야 하겠소.

표준』과 달리 ‘-고’의 ‘대조’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옳고 그르’와 같은 구성을 ‘-고’의 ‘선택’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세 사전을 비롯한 한국어 사전들에서는 ‘-고’의 선·후행 성분이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형용사 어간이 ‘-고’에 의해 통합되는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 A. ‘-고’의 선·후행 형용사가 과연 대등적인가? 이관규(1992: 27-28)에서 대등 연결은 연결요소들의 교호성(交互性)을 가장 기본적인 통사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 ‘높고 낮은 산봉우리’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짧고 긴 것’, ‘낮고 높은 산봉우리’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 B. ‘-고’의 선·후행 형용사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경우 ‘맑고 차다’와 같은 일반적 형용사구와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통사적 특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 C.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의 의미는 과연 ‘-고’의 ‘나열’, ‘대조’, 혹은 ‘선택’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1,200만 어절 말뭉치>에서 본고의 연구 대

상에 속하는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을 아래와 같이 추출했다.

크고 작-(258), 옳고 그르-(77), 높고 낮-(33), 좋고 나쁘-(27), 많고 적-(23), 길고 짧-(19), 멀고 가깝-(19), 있고 없-(9), 좋고 싫-(8), 희고 검-(5), 검고 희-(5), 가깝고 멀-(3), 느리고 빠르-(3), 작고 크-(3), 굵고 가늘-(3), 가볍고 무겁-(3), 같고 다르-(3), 바르고 그르-(2), 빠르고 느리-(1), 길고 열-(2), 덥고 춥-(2), 늦고 빠르-(2), 달고 쓰-(3), 강하고 약하-(2), 하얗고 까맣-(1), 착하고 나쁘-(1), 옹고 두텁-(1), 싫고 좋-(1), 넓고 좁-(1), 무겁고 가볍-(1), 환하고 어둡-(1), 허하고 실하-(1), 열고 질-(1)..... (총 33개)⁴⁾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는 33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더 많은 반의어들이 이 구성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예: ‘맞고 틀리’, ‘깊고 얕’ 등).

본고에서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들을 기본 자료로 하고, 인터넷 기사에서 추출된 예문들을 참고로 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3. 연구 순서

본고의 연구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반의관계를 이루는 ‘V₁’과 ‘V₂’가 ‘-고’에 통합될 때의 배열 순서를 살펴본 다음에 3장에서는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4장은 연구 대상을 3장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그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5장은 결론이다.

II. ‘V₁’과 ‘V₂’의 배열 순서

반의관계를 이루는 형용사들이 ‘-고’에 의해 통합되는 경우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다. 형용사 반의쌍과 관련하여 인지의

4) 이상 복합구성 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 수이다.

미론에서는 ‘길다:짧다’, ‘크다:작다’와 같은 반의 대립어에서 ‘길다’, ‘크다’ 등 항목을 무표항으로, ‘짧다’, ‘작다’와 같은 소극적인 항목을 유표항으로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채완(1986: 167)에서는 ‘병렬의 어순은 무표적인 쪽이 앞선다는 큰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동 혹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두 동사가 병렬될 때는, 정상적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날 것으로 가정되는 쪽이 앞선다고 하였다. 말뚝치에서 추출된 예들을 보면 ‘길다’, ‘크다’, ‘높다’, ‘옳다’ 등과 같은 무표항이 ‘-고’의 선행 위치에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무표적인 쪽이 앞선다’는 큰 원칙과 일치하다. 그러나 무표항이 ‘-고’의 후행 위치에 오는 예들도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 (3) a. 크고 작다(258) – 작고 크다(3)
- b. 멀고 가깝다(19) – 가깝고 멀다(3)
- c. 좋고 싫다(8) – 싫고 좋다(1)
- d. 희고 검다(5) – 검고 희다(5)
- e. 빠르고 느리다(1) – 느리고 빠르다(3)
- f. 무겁고 가볍다(1) – 가볍고 무겁다(3)
- g. *살하고 허하다 – 허하고 살하다(1)

(3)과 같이 이른바 무표항이 ‘-고’ 앞에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고’의 선·후행 형용사가 ‘-고’에 의해 이루어진 대등 구성에서 일반 형용사구와 같이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V₁’과 ‘V₂’의 배열 순서는 무표항이 유표항 보다 앞선다는 큰 원칙을 지킨다고 보고, 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아주 소수의 경우로 본다. (3a, b, c)와 같이 무표항이 앞서는 복합구성이 그렇지 않는 구성보다 압도적이라는 것과 무표항이 앞서는 예만 발견되고, 이와 대응하는 유표항이 앞서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모두 증거가 된다.

유표항이 앞서는 예들을 관찰해 보면, 무표항과 유표항의 배열 순서가 문맥과 관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4) a. 멀고 가깝고, 작고 큰 섬들은 어디로 날아가려느냐?

b. 멀고 가까움에 따라 색깔을 열고 짙게 표현하는 식으로 차별을...

(4a)에서는 ‘크고 작-’이 쓰여도 자연스러운 자리에 ‘작고 크-’가 쓰였다. 이것은 필자/화자가 섬들이 멀면 작아 보이고, 가까우면 커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멀고 가깝-’과 호응시키기 위해 ‘작고 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4b)에서는 ‘질고 열-’ 대신에 ‘열고 질-’이 쓰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즉, 화자나 필자가 그림 그릴 때 멀리에 있는 사물을 열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물을 선명하고 짙게 그린다는 인식에서 앞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와 호응시키기 위해 ‘질고 열-’ 대신에 ‘열고 질-’을 쓴 것으로 보인다.

(3d~f)에서는 ‘희고 검-’과 ‘검고 희-’는 같은 빈도를 보이고, ‘느리고 빠르-’와 ‘가볍고 무겁-’는 ‘빠르고 느리-’, ‘무겁고 가볍-’보다 오히려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하고 실하-’의 경우 이와 대응하는 ‘실하고 허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자어의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 | | |
|-------------------------------|--------------------|
| (5) a. 완급(緩急) – 급서(急舒)/급완(急緩) | b. 경중(輕重) – 중경(重輕) |
| c. 허실(虛實) – *실허 | d. 흑백(黑白) – 백흑(白黑) |

위와 같이 ‘급(빠르다)’, ‘중(무겁다)’ 등은 인지의미론에서의 무표항에 속하지만 한자어에서는 유표항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는데, ‘實(실하다)’은 반드시 유표항 뒤에 오기도 한다. 한자어의 이러한 쓰임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쳐 사람들이 앞에서 제시한 큰 원칙을 벗어나 유표항이 앞에 오는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을 만들어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검고 희-’와 ‘희고 검-’의 병존도 한자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에서 ‘V₁’과 ‘V₂’의 배열 순서가 ‘무표적인 쪽이 앞선다’는 큰 원칙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문맥과 한자어의 영향에 따라 큰 원칙을 벗어나 반대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V₁’과 ‘V₂’의 ‘교호성’이 자유롭지 않지만, 소수의 상황에서 교체가 가능한 것은 ‘-고’가 대등연결어미로서의 특성인 ‘교호성’의 영향일 것이다.⁵⁾

III.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통사적 특징

3장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문장에서 가지는 통사적 기능과 이런 통사적 기능을 할 때 가지는 제약을 살펴보겠다.

먼저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들을 종합해 보면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문장에서 주로 ‘-은’ 관형어, ‘-음’ 명사형, ‘-게’ 부사형, 또한 내포문의 서술어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V₁’과 ‘V₂’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인 경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단문의 서술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6) a. 겨울의 한강물이 맑고 차다.

b. ?? 리더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작다.

위 (6a)와 같이 ‘맑고 차’와 같은 일반적 형용사구는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문의 서술어로 자연스럽게 쓰이나 ‘크고 작’과 같은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은 단문의 서술어로 쓰이면 아주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점은 ‘V₁-고 V₂’형 복합구성과 일반적 형용사구가 보이는 가장 큰 통사적 차이점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문장에서 ‘-은’ 관형어, ‘-음’ 명사형, ‘-게’ 부사형, 또한 내포문의 서술어로 쓰인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통사적 기능은 일반적 형용사구와 같이 보이거나 일반적 형용사구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이런 구성이 문장에서 가지는 통사적 제약을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 이 입장은 임지룡(1988)의 입장과 일치하다.

1.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예를 보이면 다음 (7)과 같다.

- (7) a.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b.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은 바다에 뜬 섬인 양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c. 멀고 가까운 필에는 마을 사람들이 허영게 널브러져 있다.

‘-은’ 관형형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것은 일반적 형용사구도 가지는 기능이다. 그러나 ‘-은’ 관형어로 쓰이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은 주술관계가 회복 안 되는 점에서 특기하다. 일반적 형용사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예를 들면 ‘착하고 예쁜 여자 친구’가 주술관계로 회복될 때 ‘여자 친구가 착하고 예쁘다’로 아주 자연스러운 단문이 된다. 그러나 다음 (8)과 같이 관형어로 쓰이는 복합구성을 주술관계로 회복시키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8) a. * 매일매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크고 작다.
b. *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높고 낮다.
c. * 마을 사람들이 허영게 널브러져 있는 편이 멀고 가깝다.

유현경(1998: 273)에서는 서술의 기능을 하지 않고 수식의 기능만을 하는 특정한 활용형을 굳은 관형사형과 굳은 부사형으로 정의하였는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관형어로 쓰일 때 주술관계로의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쓰임이 많이 굳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피수식어에 올 수 있는 명사(구)가 제약을 받는다. 즉, 피수식어는 특정한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일 수가 없고, 복수형으로 나타나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복수의 의미를 함축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은 바다에 뜬 섬인 양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b. 높고 낮은 습도, 빠르고 느린 바람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 (10) a. 높고 낮은 [*지리산, *이 산, *그 산]
 b. 높고 낮은 [*이 습도, * 그 습도]

(9a)에서는 ‘높고 낮은’이 수식한 부분은 ‘산봉우리들’로 복수형인 ‘들’을 가지는 반면 (9b)에서는 피수식어가 복수형을 가지지 않는 ‘습도’, ‘바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9b)에서 ‘습도’와 ‘바람’이 복수형이 아니지만 각기 ‘(습도의)높낮이’나 풍속에 따라 여러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 복수의 의미를 함축한다. 피수식어가 특정한 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10)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10)은 (9)에서의 ‘V₁-고 V₂’형 복합구성 뒤에 특정한 산이나 습도로 대체해 본 예들인데 성립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여기서의 ‘-고’의 의미가 ‘나열’이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통사적으로 방증해 준다.

‘피수식어’가 추상 명사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즉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봐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길고 짧은 것’은 하나의 관용표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송철의(1992: 146)에서는 형용사 중에서 ‘-음’ 명사 파생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있는데 공간형용사들이 ‘-음’ 명사파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길: * 길음/짧: * 짧음 굵: * 굵음/가늘: * 가늘음
 크: * 큼/작: * 작음 깊: * 깊음/얕: * 얕음

이 논의에서는 ‘-음’은 그 의미 특성상 척도명사 파생의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11)에서의 형용사들이 ‘-음’ 명사 파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음’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 특성 때문일 것으로 주장했다. 공간형용사들이 ‘-음’ 명사파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간형용사구도 ‘-음’과

의 결합에 있어 제약을 받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반의관계를 이루는 공간 형용사들이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으로 쓰일 때, ‘-음’과 통합하여 문장에서 일반적 명사처럼 활발히 쓰인다.

일반적 명사와 명사형의 구별과 관련하여 송철의(1987, 1992: 153, 156)에 서는 ‘-음’, ‘-기’를 구별 하는 일이 ‘(X+)V-음’ ‘(X+)V-기’형의 통사론적 쓰임에 의존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명사형은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⁶⁾ 김창섭(1994: 141)에서는 하나의 구성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단어인 ‘동의어’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문장에서 분명한 단어들과 같은 문법적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⁷⁾ 이상욱(2004: 71)에서는 ‘후행 성분과의 공기 제약 유무’와 ‘의미론적 기준’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다.

- 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지의 기준
- ② ‘-의’, ‘때문’ 등 후행 성분과의 공기 관계 기준
- ③ 완전한 단어와 동등한 문법적 자격을 가지는지의 기준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음’과 통합할 때 명사화되었는지를 판단해 보겠다.

6) 이익섭·채완(1999: 101)에서는 다음 예를 통해 이를 명시하였다.

- a. 그가 오늘따라 호탕한 웃음을 자주 웃음은 다 까닭이 있다.
- b. 깊은 잠을 푹 잠이 건강에 가장 좋다.

위 (a)에서의 첫 번째 ‘웃음’과 (b)에서의 첫 번째 ‘잠’은 각각 ‘-ㄴ’에 의한 관형어 ‘호탕한’과 ‘깊은’의 수식을 받으므로 파생명사임을 알 수 있고, (a)에서의 두 번째 ‘웃음’과 (b)에서의 두 번째 ‘잠’은 각 ‘자주’와 ‘푹’의 수식을 받으므로 명사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김창섭(1994: 140-141)에서는 다음 예문에서의 ‘치밀함’이 단어인지를 판별할 때 이 기준을 제기하였다.

- a. ...극적구성의 치밀함과 속도감, 갈등의 깊이, 풍부한 눈요기감.....

이 논의에서는 ‘치밀함’은 분명한 단어인 ‘치밀성’과 동의라는 점과 완전한 단어인 ‘속도감’과 동등한 문법적 자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어적 성격을 짙게 가진다고 하였다.

- (12) a. 길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b. 어휘량의 많고 적음, 기억력의 높고 낮음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c. 자연 앞에서 크고 작음의 구별은 의미 없는 일이다.
 d. 귀한 삶이란 직업의 귀천과 신분의 높고 낮음과 꿈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는다.

위 예들은 모두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들이다. (12a)에서의 ‘멀고 가까움’과 (12b)에서의 ‘많고 적음’은 모두 ‘의’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12b)에서의 ‘높고 낮음’과 (12c)의 ‘크고 작음’은 ‘의’나 ‘때문’과 같은 후행 성분과 통합하고 있으며, (12d)에서는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명사인 ‘귀천’과 같은 자격으로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이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은 ‘-음’ 명사형으로 쓰일 때 명사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⁸⁾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V₁-고 V₂-음’은 속격 관형어의 수식을 잘 받지만, ‘-ㄴ/은’ 관형형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길의 멀고 가까움’은 자연스럽게, ‘*적당한/두려운 멀고 가까움’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빛깔의 질고 열음’과 같이 ‘의’의 수식을 잘 받지만 ‘*적당한/*다양한 질고 열음’과 같이 ‘-ㄴ/은’ 관형어의 수식을 잘 받지 않는다.

3. 기타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단문의 서술어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로 쓰일 때 주술관계의 회복이 잘 안 되는 특징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내포문에서 서술어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a. 어떤 글이 좋고 나쁘다고 할 때 그것은 상당 부분 어휘의 사용법에 의해 좌우된다.

8) 김창섭(1994: 140)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분명한 구의 명사화로 보고 있고, 이상욱(2004)에서는 사회적 승인을 얻지 못해 어휘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성들을 임시어로 보고 있다.

b. 어린이들에게 우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데 중점을 둔다.

위 (13)은 ‘좋고 나쁘’, ‘옳고 그름’ 등이 문장의 내포문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복문이 단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문을 복문에서 독립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내포문의 서술어로 쓰일 때 내포문을 복문에서 독립시킬 수 없다. 이 현상은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단문의 서술어로 쓰이지 못하는 결론과 일치하다.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게’ 부사어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우리 구에서 크고 작게 진행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렵잖아 60곳 정도…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게’ 부사어로의 쓰임은 다른 쓰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말뭉치에서 그 예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IV.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적 특징

『표준』, 『금성』, 『조선』 등 한국어 사전에서는 선·후행 형용사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를 모두 ‘-고’의 ‘나열’이나 ‘대조’, 혹은 ‘선택’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의 의미만으로 이런 복합구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를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그 의미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V₁’과 ‘V₂’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반의어의 유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분류법이 제시되어 있다. 임지룡(1989: 26)에서는 반의어를 상

보 대립어, 반의 대립어(즉 정도 대립어), 정도 상보 대립어, 그리고 방향 대립어와 같이 4가지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에 참여하는 ‘V₁’과 ‘V₂’는 반의 대립어와 정도 상보 대립어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⁹⁾ 그러나 ‘있다:그르다’, ‘있다:없다’ 등의 경우, 등급을 가지지 않고, 단 두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전수태(1997: 67)에서는 ‘있다:없다’, ‘같다:다르다’ 등을 단순 상보 반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옳고 그르-’, ‘있고 없-’ 등은 정도성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여기서는 정도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즉 상보 반의어를 이루는 경우를 예로 보겠다.

- (15) a. 옳고 그른 행동을 밝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b. 여분의 자금이 있고 없는, 아니면 많고 적은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c. 그는 희고 검은 건반을 빠르게 눌러가며 몇 소절을 연주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 (16) a.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크고 작은 기적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b.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은 바다에 뜬 섬인 양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c. 멀고 가까운 펄에는 마을 사람들이 허영계 널브러져 있다.
- (17) 길고 짧은 것은 대어봐야 안다.

위 (15a, b)에서 ‘옳고 그른 행동’과 ‘있고 없는 상태’는 각각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고, (15c)에서의 ‘희고 검은 건반’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의 나열 의미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나열되는 것은 ‘V₁’과 ‘V₂’가 아니라, ‘V₁’과 ‘V₂’와 같은 성질을 각자 가지는 사물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고’의 기능은 ‘맑고 찬 물’에서의 ‘-고’의 나열 기능과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16)에서의 예들을 보면, ‘크다:작다’, ‘높다:낮다’, ‘멀다:가깝다’ 등 반의

9) 반의 대립어와 정도 상보 대립어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임지룡(1989: 26)에서는 반의 대립어와 비교할 때 정도 상보 대립어는 중립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어는 모두 정도성을 가지는 것들이다. 정도 반의어들이 ‘-고’에 의해 통합되는 경우 역시 단순히 ‘-고’의 나열이나 선택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형용사를 예로 든다면 ‘크고 작은 기적들’이라고 할 때 ‘큰 기적과 작은 기적’, 혹은 ‘큰 기적이거나 작은 기적’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여러 가지인, 다른 기적들}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높고 낮은 산봉우리’도 ‘높이가 {여러 가지인, 다른 산봉우리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멀고 가까운 펄’은 ‘거리가 {여러 가지인, 다른 펄}의 뜻을 나타낸다.

(17)은 관용표현으로 굳어진 예인데 여기서의 ‘길고 짧은 것’은 ‘(여러 길이에서)길이가 어떠한지’의 뜻으로 이해된다.¹⁰⁾

2.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음’ 명사형으로 쓰여 명사화된 ‘V₁-고 V₂-음’의 의미도 ‘V₁’과 ‘V₂’의 성격에 따라 상보 반의어와 정도 반의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상보 반의어 관계를 이루는 형용사들의 경우를 보겠다.

- (18) a.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b. 판단의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따질 때에는 기분에 따라 판단하면 곤란하다.
 c. 의학적으로는 치녀막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치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 특정 상품의 재고가 있고 없음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

(18a, b)에서의 ‘옳고 그름’은 ‘정부(正否)’에서 순화된 말이고, (18c, d)에서의 ‘있고 없음’은 ‘유무(有無)’와 대응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옳고 그름’과 ‘있고 없음’은 모두 하나의 명사와 같이 쓰이고 그 의미도 각각 명사인 ‘정부(正否)’, ‘유무(有無)’와 같다.

‘-고’의 선·후행 형용사가 정도 반의어인 경우도 하나의 어휘적 의미를 가지

10) 다른 형용사들이 이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어떤 성질이 어떠한지’의 의미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좋고 나쁜 것은 대어 봐야 안다’ 등이 있다.

게 된다. ‘많고 적음’을 예로 들어 보겠다.

- (19) a. 물품의 많고 적음, 양에 따라 신랑 집의 경제적인 형편을 알게 된다.
 b. 인간과 동물의 언어의 차이가 신호의 많고 적음, ?양뿐이라면...
 c. 이용 금액의 많고 적음, 양/수량보다는 이용 건수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 (20) a. (양/*많고 적음)이 많다/적다.
 b. 해야 할 일의 (양, *많고 적음)이 어떻게 돼요?

(19)에서와 같이 ‘많고 적음’이 올 수 있는 자리에 ‘양/수량’이 와도 통사적이든, 의미적이든 이상이 없다. 그러나 ‘많고 적음’은 ‘양’과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20a, b)를 보면 ‘양’이 쓰이는 여러 자리에 ‘많고 적음’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와 (20)를 비교해 볼 때, (19)에서 ‘많고 적음’이 쓰이는 경우에 그 주체가 여러 양적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a)의 ‘물품의 많고 적음’에서는 ‘물품의 양은 정도성을 보이는 여러 양에서의 한 가지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양’은 단순히 ‘세거나 젤 수 있는 분량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반면에 ‘많고 적음’은 정도 차이가 보이는 여러 양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고’의 선·후 위치에 정도성이 있는 형용사가 오는 경우, ‘V₁-고 V₂-음’은 ‘정도성을 보이는 여러 상태 중에서의 한 상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음’, ‘길고 짧음’, ‘멀고 가까움’, ‘가볍고 무거움’ 등은 모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3. 기타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이 내포문의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와 ‘-게’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다.

- (21) a. 어린이들에게 우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데 중점을 둔다.
 b. 어떤 글이 좋고 나쁘다고 할 때 그것은 상당 부분 어휘의 사용법에 의해

좌우된다.

- c. 바둑 팬들은 대개 어떤 기전이 크고 작은지 짐작할 수 있다.

위 (21a, b, c)는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이 내포문 서술어로 쓰이는 예들이다. (21a)와 같이 ‘V₁’과 ‘V₂’가 상보 반의어인 경우,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의미는 ‘-고’의 나열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주어인 ‘무엇’이 ‘옳다’와 ‘그르다’의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무엇이 어떤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V₁’과 ‘V₂’가 정도 반의어인 경우, (21a)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21b)에서 ‘어떤 글이 좋고 나쁘다’에서의 ‘좋고 나쁘다’는 ‘좋거나 나쁘다’와 같이 이중태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도성을 보이는 여러 상태 중에서의 한 상태를 나타낸다. 즉, ‘어떤 글이 (질이) 어떻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1d)에서의 ‘어떤 기전이 크고 작은지’도 어떤 기전이 ‘여러(규모) 크기에서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란 의미를 나타낸다.

- (22) 우리 구에서 크고 작게 진행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렵잡아 60곳 정도….

(22)은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이 ‘-게’ 부사어로 쓰이는 예이다. ‘V₁-고 V₂’ 형 복합구성이 ‘-게’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그 의미가 ‘-은’ 관형어로 쓰일 때와 일치하다. 즉 여기서의 ‘크고 작게’는 ‘크기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V. 결론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반의관계를 이루는 두 형용사가 ‘-고’와 통합하여 이루어진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II장에서는 ‘V₁’과 ‘V₂’의 배열 순서와 관련하여 ‘무표적인 쪽이 앞선다’는 큰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의 원인을

문맥과 한자어의 영향 등에서 찾았다.

III장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문장에서 ‘-은’ 관형어, ‘-음’ 명사형, 내포문의 서술어, 그리고 ‘-게’ 부사어로 쓰이지만, 단문의 서술어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1에서는 ‘-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주술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수식어가 복수성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았고, III.2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음’ 명사형으로 쓰이는 경우 문장에서 일반 명사와 같이 가능하고, 이미 명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3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내포문의 서술어로 활발히 쓰이나 이럴 경우도 역시 내포문이 하나의 단문으로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드물지만 ‘-게’ 부사형으로 쓰이는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는 단순히 ‘-고’의 나열이나 선택 의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1에서 IV.3까지는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이 ‘-은’ 관형어, ‘-음’ 명사형, 또한 내포문의 서술어와 ‘-게’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의미는 그 통사적 위치와 ‘V₁’과 ‘V₂’의 정도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V₁’과 ‘V₂’가 반의관계를 이루는 형용사인 경우, ‘V₁-고 V₂’형 복합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구성을 ‘V₁-고 V₂-고’형 복합구성, 또한 ‘V₁’과 ‘V₂’가 동사인 ‘V₁-고 V₂’형 복합구성과 비교하면서 관찰하면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 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고광주(1999), 「대등 접속문에 대한 재검토」, 『한국어학』 제8집, 한국어학회, 48-80.
- 고재설(2003), 「국어 대등접속문의 성립 조건과 구조」,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135-156.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 김민수 등(1991), 『금성관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김의수(2002), 「언어단위로서의 상당어(相當語) 설정 시고」, 『형태론』 4권 1호, 박이정, 81-101.
- 김진유(1984), 「말(言語)과 맘(心理)」, 『말』 9,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 김진해(2000), 「언어의 계열관계 연구」, 『국어학』 35집, 국어학회, 198-222.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논서 21, 국어학회.
- 남경완(2007), 「굳은 관형사형의 유형별 처리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22, 한국어 의미학회, 25-45.
- 남미혜(1996), 「국어의 연속동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박종갑(2000),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 (3) - 문장의 선형 구조와 관련된 도상성을 중심으로 -」, 『국어학』 35, 국어학회, 93-111.
- 박진희(2005), 「언어의 제약에 대하여」, 『語文論文』,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3-105.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동방출판사.
- 서승현(2002), 『국어의 형태·통사적 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서정수(1985),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1) - 대등접속어미 -」, 『한글』 198, 한글학회, 51-86.
- 서형국(1997), 「복합구성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 대등 구성을 중심으로」, 『國語言語文學』 64, 國語言語文學會, 25~44.
- _____ (2006), 「국어 연결어미의 통합 관계」, 『민족문화연구』 45, 민족문화연구원, 367-385.
-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형태론』 2권 1호, 1-16.
- 송재목(2003), 「형용사 반복구성 - 희디 희다, 크나 크다. 넓고 넓다 -」, 『국어학』 42, 국어학회, 27-50.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논서 19, 국어학회.
- 시정근(1991), 「국어 관형구성의 형태, 통사적 양면성」, 『어문논집』, 안암어문학회, 351-362.
- _____ (1999), 「‘X + 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태론』 1권 1호, 박이정, 133-141.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 양상」, 『국어학』 3권, 135-150.
- 양정석(2004), 「국어 연결어미 절의 통사론」, 『배달말』 40, 배달말 학회, 33-87.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이관규(1992),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_____ (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출판사.
- 이동혁(2003), 「언어표현의 유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131-160.
- 이상욱(2004), 「‘-음’, ‘-기’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근석(2006),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지룡(1988),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 _____ (1997), 『인지의미론』, 답출판사.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83-104 [임홍빈 (1988)에 재수록].
- 전수태(1997), 『國語 反意語의 意味 構造』, 박이정 도서출판사.
- 채완(1986), 「국어의 反復 및 並列에 있어서의 語順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Cooper & Ross(1975), “World order”, *CLS Functionalism*, 63-111.